

책을 통해 떠나는 인도로의 신비한 旅路

인도기행 서적 세권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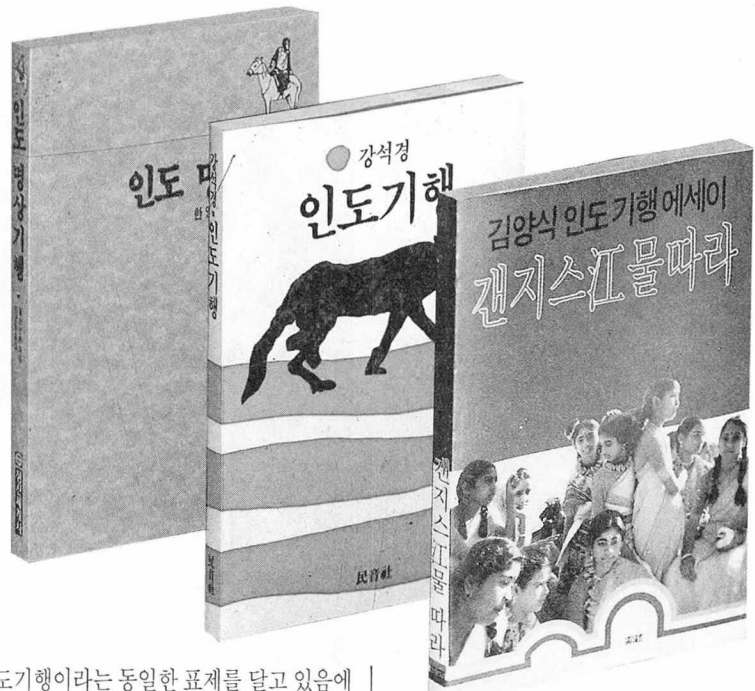
河在鳳

시인

인도는, 하나의 상징이다. 나에게 있어서 인도란, 초을 다투며 대학입시에 열중하던 고 3의 무더운 여름날 저녁, 아무런 대책없이 텐트 하나를 들고 떠나버린 밤낚시에 다름 아니며, 또 그것은 군입대를 앞두고 발길 닿는대로 섬에서 섬으로 떠돌아다니던 10여개월의 유예된 기간동안, 내 축축한 어깨를 적시던 바다노을 같은 것으로부터,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인도'라고 발음하는 순간, 우리들의 정신은 단숨에 어떤 고양된 삶의 실체에 접근하게 된다. 단지 '인도'라는 단어 하나가 환기시켜 주는 이 놀라운 감각의 전이를 현상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 '인도'는, 적어도 이 땅과는 다른 어떤 신비스러운 힘에 의해 지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도는 무엇인가. 인도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이런 의문들에 답하기는 아주 쉽다. 인도(印度) [인] [지] (India) 남아시아 중부에 있는 큰 반도. 북은 히말라야 산맥에 의하여 중국과 접함. 일찍이 기원전 3천년경부터 인더스 유역에 문명이 번성하고 기원전 1천 5백년경부터 베다 문화가 형성되었음. 기원전 3세기 아소카왕에 의하여 불교가 기운차게 일어났으며, 1858년 영국의 직할식민지가 됨. 1차대전 이후 간디 등에 의해 독립운동이 고조되었고 2차대전 후 힌두교도를 주로 하는 인도연방과 회교도를 주로 하는 파키스탄으로 나뉘어 독립했음. 카스트라는 신분제도가 엄격하고, 1974년 핵실험에 성공하여 세계에서 여섯번째 핵보유국이 됨. 면적 305만km. 인구는 약 6억. 그러나 이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인도의

정체를 파악했다고 안심하기에는 어딘가 미심쩍어 진다. 왜, 인도가 문제가 되는가. 인도가 우리들 관심의 한 복판으로 떠오르면서 강한 자장력을 발휘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인도를 생각할 때마다 정신의 지평이 갑자기 광활해지며, 지금, 이곳의 삶과는 다른 형태의 삶이 존재하리라고 믿게되는 이 까닭없는 힘은 정말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의문들에 사로잡혀, 그러나 그 의문들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채, 나는, 최근 한달 사이에 간행된 인도기행 서적 세 권을 읽었다. 작가 강석경이 쓴 「인도기행」(민음사)과 시인 김양식이 쓴, 「인도기행 에세이」라는 부제가 붙은 「갠지스강물따라」(인문당), 그리고 기자 출신의 영국작가 폴 브런튼이 쓴 「인도명상기행」(정신세계사)이 그것이다. 그러나 90년 6월12일 현재 조선일보에 「법정스님의 불교나라기행」이라는 제목아래 16번째 연재되고 있는 기행문 「삶과 죽음의 언저리」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외면적으로 갑자기, 인도가 일반인들에게 사태지듯 쏟아지고 있는 셈이다.

삶의 끝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죽음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무관심하지는 않는, 우리 시대의 평범한 인간 중의 하나인 나는, '인도'를 발로 밟고 다니며 직접 온몸으로 체험한 사실들을 기록한 세 권의 책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인도'는 '인도'로 남아있음을 먼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기행이라는 동일한 표제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국인의 영적인 인도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폴 브런튼의 「인도 명상기행」은, 다른 두 권의 책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폴 브런튼이 쓴 이 책은 지금부터 55년전인 1935년에 유럽에서 출판되었기 때문에 시, 공간적으로도 커다란 거리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제가 시사해주는바와 같이 단순히 인도의 풍물과 정경을 표현한 것이 아닌, 인도의 정신적 거주지를 따라 다양하고 신비한 순례의 길을 떠나며 경험한 것을 기록한, 일종의 영적인 기행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폴 브런튼은 1898년 영국에서 태어나 1981년 스위스에서 생을 마쳤는데, 요가와 명상 등 인도의 정신문화를 감각적이고 유려하며 흡인력있는 문체로 서구에 소개한 첫번째 인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늘날 영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스승으로 불리우며 추앙을 받고 있는 라마나 마하리쉬도, 폴 브런튼이 쓴 이 책을 통하여 소개되었다.

「인도 명상기행」이 주는 감동은, 기자 출신이며, 서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잘 교육받은 저자가, 손쉽게 어떤 해결점을 도출하지 않고 끊임없이 회의하면서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접근해가려는 진솔한 노력이며, 간결하고 선명한 현재형의 문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칫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흐르기 쉬운 주제를 흥미롭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서 온다.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정신적인 스승들을 찾아 떠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매혹적이고 신비한 인물들, 성자, 요기, 수행자, 신비



여연스님 글모음집

비가 내린 뒤의 사원 숲은 참으로 해맑다

가을비 속에 젖어 스미던 그 노승의 염불 소리가 아직도 내 영혼 속에서 울려퍼지고,
깨어진 그릇 조각들이 여러 백년의 아득한 세월의 향기를 담고 있듯,
우리네 사고의 편린이 쏟아내는 글 또한 어느 아득한 세월의 모퉁이에서도 평온하고 아름다운 향기로 남아야 하겠다.
평온한 아름다움의 소리, 향기이려면 단순히 감성을 적셔 주는 탐미의 글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건강한 존재의 중심이 되는 노래여야겠다. 존재와 역사, 통일과 민족, 노동과 소외, 가난이 휘젓는 절망과 고통, 이별의 회한, 애린이 물고오는 절망,
그 애증의 그림자 그리고 또 고통, 서성이는 죽음, 무마른 저 갈증의 생명들, 그런 것들을 풀어내려는 참으로 심신한 노래의 향기여야 한다.
참 생명의 해방, 그런 간절할 소망이 빚어내는 향기와 소리 속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나의 잠문은 부끄럽게도 어느 것 한 귀퉁이에도 가 닿지 못하고 그저 언어 속에서 침범거리며 상투적인 관념으로 엄살만 부리고 말았다.
그래도 이런 비뿔어짐 속에서나마 나는 아직 살아 있다는 위안을 받고, 비록 잠문 속에서나마 내일이라는 단단한 희망의 빔장을 열어보고 싶다.
변형 신국판/245쪽/값 3,300원

해인 편집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792번지 · 우편번호 120-190 · 전화번호 (02) 312-6548 · 공금처 / 다보 (02) 782-1898

海印寺 出版部



술가 등과의 영적인 교감의 과정을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마침내 그의 스승인 라마나 마하리쉬를 만나 영적인 구원을 얻기까지가 매우 설득력있게 적혀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는, 인도의 단순한 풍물 같은 것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오직 정신적 인물들 속으로의 여행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데 열중하고 있다. 저자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을 어떤 정신적인 기운, 마치 그가 스승인 마하리쉬 앞에서 느꼈던 알 수 없는 평온함 같은 그런, 초월적 상태와 신비스러운 마력에 젖게 되는 것을 독자들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요기(요가 수행자) 혹은 화키르(회교수도자, 신비수행자)라고 불리는 신비스러운 족속들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흥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만져 지지도 않는 어떤 힘을 자연으로부터 얻어내어 이를 능숙하게 부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신주의에 대한 경사에서 촉발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디를 가거나 비평적이면서도 적대적이지 않은 태도를 유지했다"는 저자의 고백은 정확한 것이다. 그러한 태도가,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기들의 수행과 마술사, 점성사들의 신비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

강석경의 「인도기행」은, 나로서는 개인적인 상처와 결부되어 새롭게 읽히기 때문에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고백하자면, 그의 「인도기행」은 머릿말에도 나와 있듯이 "속진의 세상에서 서른 해를 못 넘길만큼 결박한 영혼"인 고 기형도 시인에게 바쳐지고 있다. 기형도가, 삭막한 도시의 심야극장에서 쓰러지기 25일전인 89년 2월 10일, 인도에 있는 강석경에게 쓴 편지는, 이 책의 말미에 삽입되어 있다. 4달동안 인도 전역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향한 탈출구를 찾기 위해 목말라 했던 저자의 손에 이 편지가 들어간 것은, 시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지 두달 뒤인 5월 11일이었다. 죽음과 삶이 이웃처럼 존재하는 갠지스 강변에 대한 묘사가 유달리 가슴을

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쉽게, 자신의 감정의 속살을 보이며 하지 않는다. 사막의 밤에서 그는 이렇게 깨닫는다. "이젠 그 무엇도 그림자 없다. 헛된 그리움도 홀연히 사라졌음을 깨닫는다. 몸은 공기처럼 가볍고 혼도 별처럼 맑게 뜨는 것 같다. 이 순간엔 내 영혼이 진화하여 스스로 육체라는 숙주를 벗어나 우주로 여행하는 듯하다... 수없는 은하의 별들이 바로 내 가슴 속에 뜨고 있으니..." 이것은 삶의 과정에서 어느 한 '각성'의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 여행이 주는 가장 훌륭한 미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순간은 매우 감동적이다.

김양식의 인도기행 에세이 「갠지스 강물따라」는, 우선 몇차례에 걸친 인도방문을 한군데 뭉뚱그려서 쓰고 있고, 또 어떤 일관된 순례기가 아니라, 인도에 관련된 잡다한 사건과 지식들(사적인 경험과 결부된 것까지 포함하여)이 혼재되어 있어 혼란스러움을 준다. 또, 위의 두권의 책에 비해서 감각적이지도, 치열한 정신적 긴장도 보이지 않는다. 인도라는, 오랜 유적과 다양한 종교와 낯선 풍물이 뒤섞인 알 수 없는 땅을 답사하며 쓴 여행기로 나에게 보였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현재 조선일보에 연재중인 법정스님의 「불교나라 기행」이, 특유의 흡인력있는 문체, 단순하고 직관적 사유로 사물에 대해 접근하는 그의 정신이 흥미로웠다.

"나는 자신을 변화시킬 그 어떤 것을 찾으려 목마른 순례자처럼 길을 떠났지만 어떤 것도 결국은 내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냉혹한 진리에 다시 부딪혔다"는 것을 자각한 것이, 강석경의 인도기행 결말이었다. 이 부분은, 폴 브라운이 그의 「인도명상기행」에서 기술한, 스승 마하리쉬의 "먼저 '나'를 알라.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과 흡사하여 흥미로웠다. 그렇다. 결국, 인도는 벵골만과 아라비아해 사이에 있는 거대한 신비의 땅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 위치한 어떤 정신의 다른 이름에 다름아니다.

뉴스

출판·서점인의 상호협력방안 모색

전국서점실무자 연수회 및 '도유통' 정기수련회

도서유통개선협의회가 주최한 제1회 전국서점실무자 연수회 및 제3회 '도유통' 정기수련회가 지난 6월 2일과 3일 이틀동안 경기도 하남시 하남캠핑장에서 열렸다.

바람직한 도서유통 구조의 확립을 목표로 출판·서점인의 자질향상과 긴밀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

에는 김경희(지식산업사 사장), 김희락(출판연구소 사무국장), 박인수(교보문고 차장), 조상호(도서출판 나남 사장)씨가 강사로 참가, 관계자들과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출판의 전산화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정보화 사회에서의 출판산업 전산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희락씨는 "다품종 소량의 출판산업 구조와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인 독서행위를 생산과 수용과의 관계에서 볼 때 출판산업은 가장 발전적인 정보산업의 한 분야"임을 전제, 정부관계당국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출판계의 인식전환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판사와 서점의 전산화 현황을 자세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96개업체 가운데 컴퓨터를 구비한 출판사는 33%, 이들 중 도매서점과 소매서점이 각각 50%와 9%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업무 전산화 현황조사에서는 전체 업무를 전산화하고 있는 곳은



소매서점 1개사, 회계·판매·관리업무를 전산화하고 있는 곳은 도매서점 1개사, 소매서점 1개사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박인수씨는 '서점 매장관리의 일반이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매장의 기본적인 분류방식과 상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소개했다. 재고도서를 포함, 도서관리에 있어서의 실무지식을 비롯해서 상품포장, 서점의 역할 및 서점 종사자의 조건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항목별 설명으로 실무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특히 서점의 고객에 대한 역할 중 각종 도서정보의 제공을 중요한 기능으로 보고, 서점 종사자의 조건으로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도 김경희씨와 조상호씨가 '출판의 전망과 지향점' '출판인의 직업윤리'에 대해 각각 특별강좌를 가졌다.

海印寺 出版部

해인사 벽화 이야기



해인사 벽화이야기가 책으로 엮어져 나왔습니다.

이미 해인 창간 때부터 한판씩 소개되어 해인 독자들로부터 크게 인기를 모은 바 있는 해인사의 벽화 이야기들이 마침내 두툼한 책 한권으로 엮어져 나온 것입니다.

'해인사 벽화 이야기'는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한 해인사 당우의 벽화들을 그 그림에 얽힌 부처님 이야기, 선사 이야기, 불교 설화 등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쉽고 재미있는 글로 쓰여지고 흥미롭고 신비로운 벽화 그림으로 꾸며져 있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겁게 볼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책입니다.

특히 불교인에게는 신심을 두터이하는 소중한 도반이 되어줄 것이며, 또한 비불교인이나 여러 학생들에게는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크기/185x255mm, 두께/총 224면, 종이/스노우화이트 120g, 인쇄/전연색 오프셋 인쇄, 그림/총 59편, 값/6,500원

해인 편집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792번지·우편번호 120-190·전화번호 (02) 312-6548·공급처/다보(02) 782-1898